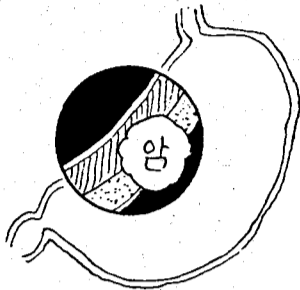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 임의 현황과 관리대책



**홍 원 선**  
(울산의대 교수)

## 위암(胃癌)



**진행위암**  
◆근육층 이상을 침범

모로 변하여 발생되는데 이 과정은 발암물질에 의하여 진행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인체내 거의 모든 세포 속에는 암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암유전자는 세포의 분화와 증식이 진행될 때만 정교히 발현되고 보통 때에는 발현이 억제되어 있다. 그런데 정상 위점막세포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억제되어 있던 암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정상세포는 암세포로 변화된다.

한편 사람의 몸속에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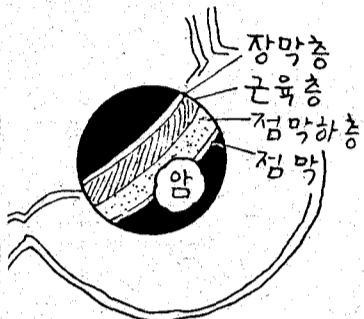
다.

의학적으로도 식생활 패턴이 위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제까지 실시된 수많은 역학조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었다. 실제로 식생활 패턴이 비슷한 동아시아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높다. 미국도 1930년대 이전까지는 위암발생이 아시아와 비슷하게 매우 높았다. 그런데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보관 방법이 바뀐 뒤 위암발생은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백인은 물론 미국에 이민간 아시아인 2세와 3세에서도 위암 발생이 현저

소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은?

위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니트로소아민(nitrosoamine), 소금 그리고 이종환식아민(heterocyclic amine)이다. 니트로소아민은 여러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발암물질인데 변질된 식품속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세균에 의하여 위속에서 생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짜게 먹으면 위점막에 존재하는 발암촉진능력을 갖는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위암이 쉽게 발생한다. 또한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고열에서 태우면 이종환식아민에 속하는 여러종류의 발암물질이 만들



### 조기위암

◆점막하층까지 침범

우리나라는 위암의 극심한 다발지역으로 최근 치료성적의 눈부신 향상에도 불구하고 매년 11,000명 정도가 위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실제로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중 24% (남자 29%, 여자 18%)가 위암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위암은 50대와 60대에 호발하며 전체의 4분의 3은 45세부터 69세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과거 수십년에 걸쳐 위암발생이 현저히 저하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률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근자에 이르러 위암의 발생원인과 과정에 대한 윤곽이 대체로 밝혀졌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위암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유전적 요인

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관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위암에 대한 조기진단 기술 및 각종 치료법의 비약적인 발달로 위암은 이제는 불치의 죽음의 병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는 암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위암의 발생원인이 밝혀지고 치료법이 진보함에 따라 위암에 대한 관리대책이 정립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는 위암의 발생원인, 위험인물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문에서는 위암의 발생원인과 최근 정립되고 있는 위암 관리대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 ■위암은 왜 발생하나?

위암은 위점막세포가 암세

러한 발암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역감시기구를 갖고 있는데 주로 대식구와 임파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발생된 위암세포의 대부분은 면역감시기구의 공격을 받아 사멸하기 때문에 누구나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면역감시기구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특성을 획득한 위암세포가 출현하면 증식을 계속하여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주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위암의 발생에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다 관여하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위점막에 음식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속에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위점막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필연적이기 때문이

히 감소하였다. 이는 식생활 패턴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위암발생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유전적 요인이 위암발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동일한 발암물질에 똑같이 노출되어도 위암발생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발암물질에 대응하는 인체내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다시말하면 다량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대부분의 사람에서 위암이 발생되나 소량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유전적으로 발암물질에 대응력이 약한 사람에게만 위암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가족중 위암환자가 많으면 위암을 쉽게 발생시키는 유전적

어지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위암에 안걸리려면 소금을 적게 먹고, 변질된 고기와 고기가 타서 숯같이 검게 된 부분은 안 먹어야 한다.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위암발생률의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주원인은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 보관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냉장고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고기를 보관하는데 말리거나 훈제하거나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식품보관 과정에서 니트로소아민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금의 섭취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보관 방법이 바뀌어 발암물질이 감소되어 위암발생이 적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이 애호하는 술과 커피가 위암발생을 직접

**中國皇室秘方生藥 31種**  
鹿茸 廣狗腎 黑驢腎 當歸  
人參 牡丹皮 海馬 杜仲 阿膠  
桂枝 仙茅 菟絲子 補骨脂  
淫羊藿 胡蘆巴 巴戟天 肉蓯蓉  
鎖陽 川續斷 熟地黃 覆盆子  
炮附子 枸杞子 玄參 黃耆 白朮  
山茱萸 茯苓 麥門冬 牛膝 甘草



표준소매가격: 40칸셀/30,000원, 120칸셀/80,000원  
문의처: (02)464-0861, 학술부



## ‘맨파오’란 **男寶**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와 자양강장제입니다.

수입·판매원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길 656-408  
제조원  
**日本·田辺製藥株式会社**  
日本·大阪  
제출원  
**中國天津市力生製藥廠**  
中國天津市南開區廣河道491號

## 맨파오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秘方

# 최근 우리나라 암의 현황과 관리대책

적으로 유발 또는 촉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담배는 위암발생을 증가시키는데 흡연 개시연령이 낮을수록 위암발생이 많으며 1일 흡연량과는 큰 관계가 없어 발암초기 단계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즉시로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5~20년 정도의 잠복기간이

는 병으로 위속이 저산증이 되면 세균증식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위속에 세균이 증식하면 섭취한 식품속의 초산염과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발암성이 강한 니트로소아민이 발생된다.

한편 저산증이 지속되면 위점막이 장점막세포로 재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장상피화생이라고 부르며, 좀더 심하여지면 변형된 세포

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식생활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발암물질을 완벽히 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일차예방은 이차예방과는 달리 위절제나 항암제 투여등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점이 있어 위암 예방사업의 최우선 대책임은 분명하다.

한편 일차예방을 위하여 암예방 효과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녹황색 채소를 매일 먹으면 위암의 발생은 1/2~1/3로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녹황색 채소에는 발암을 억제하는 비타민 A와 E 그리고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암예방을 위하여 항발암효과가 있는 녹황색 채소를 매일 조금씩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무리 일차예방을 잘하여도 암발생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암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이

차예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차예방의 핵심은 조기발견이다. 이는 최근 수술기술과 항암제 요법의 진보로 위암의 치료성적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위암의 치료성적은 병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절한 치료는 받았을 경우 1기에서는 5년 생존율이 95%, 2기에서는 70%이나, 3기에서는 30~40%, 4기에서는 10% 미만이다. 이렇게 1기와 2기의 치료율은 비교적 높지만 3기와 4기로 진행하면 아직도 치료율이 낮다.

따라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려면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위암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위염이나 위궤양과 구별이 어렵다. 다시말하며 증상만으로 위암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소화장애라도 한달 이상 지속되면 위암검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또한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40대 이후에는 1년에 1번씩 위암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가족중 암환자가 있거나 언급한 위험인물에 해당하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것을 권한다.

현실적으로 위암검사를 하려면 위루시라는 X-레이 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번거롭고 귀찮으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암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검진자의 고정화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검사를 받는 사람만 받는 검진 고정화 현상은 이차예방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암에 대한 관리대책은 가능한 어릴때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위암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암검사를 받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위암검사를 받으면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다.



걸리기 때문에 나이들어 위암에 안 걸리려면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발암물질을 피하는 식생활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위암에 걸리기 쉬운 위험인물은?

최근 위암발생이 유난히 많은 위점막 병변이 있음이 알려졌는데, 위축성 위염(萎縮性胃炎)과 장상피화생(腸上皮化生)이라 불리는 위점막 병변과 용종(茸腫)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병변이 있다고 모두 위암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암(前癌)병변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일단은 위험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위암예방에 유리하다.

위축성 위염은 위점막이 위축되어 위산분비가 감소하

가 출현하는데 이러한 세포를 이형성(異形成)세포라 부른다. 그런데 장상피화생이나 이형성으로 변형된 세포는 위암세포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용종은 위점막 세포가 과다증식된 버섯같은 혹으로 큰 용종이나 평평한 용종은 암으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 또는 용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위암의 위험인물로 간주하여야 한다.

### ■위암에 대한 관리대책은?

위암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위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차예방이며, 차선책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여 위암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차예방이다. 일차예방을 위하여는 발암물질을

##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보는 위암

- 문 1) 위암의 발생이 먹는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까?  
답)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일본 등에서는 위암의 발생이 그간 많았던 추세였는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먹는 음식과의 관계가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된장을 많이 먹는데 이 된장 속에 '아플라톡신'이란 것이 있어서 이것이 발암물질이라고 생각된때도 있었고, 쇠고기·불고기·생선구이 등 구워서 먹으면 구울 때 생긴 탄 것이 암을 유발시킨다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불고기 맛을 그르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한 술의 계속적인 자극이나 양이 많게 먹어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하는 등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들먹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고사리나물이 발암물질이라고 하여 연구 보고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것도 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곤란합니다.
- 문 2) 위암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이 어렵고, 상복부 동통이나 불쾌감·팽만감·소화불량·트림·식욕감퇴·체중감소·구토·토혈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 문 3) 위암의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지난 16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 등록된 4천56명의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3기 환자가 전체의 47.9%로 가장 많았으며, 4기가 33.3%, 2기 11.2%, 1기 7.6%로 대다수의 환자가 병세가 상당히 악화된후 내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은 병이 악화될수록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결국 위암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위암의 예방으로는 평소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과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맨파오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秘方

# '맨파오'란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지양강장제입니다.

중국 31종 생약

鹿茸 廣狗腎 黑龍腎 當歸 人參 牡丹皮 海馬 杜仲 阿膠 桂皮 仙茅 菟絲子 補骨脂 淫羊藿 胡蘆巴 巴戟天 肉從蓉 鎖陽 川續斷 熟地黃 覆盆子 炮附子 枸杞子 玄參 黃耆 白朮 山藥 茯苓 麥門冬 牛膝 甘草

MAN PAO

표준소매가격 : 40그램/30,000원, 120그램/80,000원  
문의처 : (02)464-0861, 학술부

수입·판매업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408  
제조업  
日本·田辺製藥株式会社  
日本·大阪  
제분업  
中國天津市力生製藥廠  
中國天津市南開區黃河道 491 号